

20세기를 마감하며

새 천 년을 맞는 양돈인의 자세

이광우/안성지부장

우리의 양돈 산업은 지난 30년 짧은 기간 동안에 경중 농업의 보조산업 형태에서 전업 축산으로 급속도로 변화해 가며, 국민에게 고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연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이 수입개방과 소비 부진, 되풀이되는 가격 등락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국민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증가가 큰 몫이었겠지만, 90년대 이후 WTO 협정으로 수입이 개방된 상황에서 터진 붓물처럼 밀려오는 외국산 농축산물과의 시장 경쟁에서 당당히 맞서 겨루는 상황을 보면, 그간 이에 대비한 정부 당국의 역할과 아울러 우리의 양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 노력해온 업계 선각자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인식케 한다.

이제껏 우리는 양적 팽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이제 질적으로 우량산업 체계를 만들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21세기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과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으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보 전달 매개체의 발달과 함께 하면서,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업계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산돼지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울러 수출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산비는 다른 양돈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을지라도, 나라별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은 부위를 비교적 높은 가격

으로 수출함으로써, 지난해 위기를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국내 돈가 안정을 위해서도 수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우리의 수출 대상 국가인 일본의 수입요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돼지 기르는 일 하면 우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여름이면 파리가 지천이고, 분노가 넘쳐흐르는 것으로 인식되어 양돈을 생업으로 하는 이를 제하곤 대다수 국민 모두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양돈산업은 우리의 주변이 아닌 국민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육성해야 할 가치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양돈장 환경 개선과 완벽한 분노처리는 우리 양돈인들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고 실제론 불가능한 것으로 많은 양돈인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불 때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뿐 아니라 내 생활 터전의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돼지 분뇨를, 어떻게든 저비용으로 없애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인 유기질 비료의 품질 문제에 관심이 없어 시설 업체의 설비 개발 방향이 설정되고, 농가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분을 우수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를 사용해주는 경농농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으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생

산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되어질 것이다.

양돈산업의 상황이 새로운 천년이 다가온다 해서 당장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고, 돼지 키우는 업이 농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우리 국내 사정만으로 우리업이 지탱될 수 없는 처지이고, 국내 외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개별 농장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직적인 힘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협회를 통한 의사의 결집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21세기는 글러벌 경제시대로서 20세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동안 단순한 생산 활동에 머물러 온 양

돈산업도 생산, 수집, 유통, 무역, 설비 등 관련 산업 모두 포함한 「식품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때, 우리 생산자들도 소비자의 요구를 예상해 가며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돼지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식육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세상사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대체로 성공적인 사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장점을 개발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사고로 새천년을 맞이하자.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밝은 새 천년이기를

손 무/하남광주지부 회원

하루의 해가 지면 반드시 다음날 해가 돌아오듯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간다. 금세기 동안 말로써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개인이나 사회·정

치·국가 모두가 한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같이 겪지 않았나 싶다.

정치적으로는 한번도 야당이 여당이 되어본 적이 없던 우리

나라에서 야당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었나 싶었지만, 외환 보유고가 미달 사태가 되어 IMF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 나

라밖에서도 알아주던 굵직한 대기업이 힘없이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손을 드는가 하면, 죄없는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 평생 일한 일터에서 떠나야 하는 설움을 겪었다.

많은 가장이 실직 가장이 되어 노숙자로 떠돌고 가정이 파탄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바로 깨닫고 일어서는 저력을 보였다.

수출은 물론이요 공장가동률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엇그제 같은 과거의 고통을 잊고 다시금 흥청망청 무절제한 생활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GNP 10,000달러에서 뒷걸음쳤지만 지금부터 6,000달러, 10,000달러, 20,000달러로 굳은 땅에 물 고이듯 다져지길 바란다.

다.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후원하여 건설한 탑을 쌓았으면 한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아픔을 겪어낸 우리 국민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밝은 새 천년을 기대한다.

생산성 극대화로 발전방향 정립해야

김성용/(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국내 경제 성장의 이룩과 동시 희노에락이 교차했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축산업도 많은 성장과 난고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UR·WTO·OECD 가입으로 국내 전 산업의 세계화·개방화가 거세지면서 우리 축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런 거센 파도에도 우리의 양돈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헌신의 노력으로 발

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고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걸림돌이 우리의 양돈산업을 벼랑 끝에 내밀게 하여 경제적 고충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한 수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런 고충 속에서도 축산기자재산업 시장도 어려움에 봉착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그

동안 축산기자재산업은 UR이후 축산자동화에 대한 양축농가의 관심이 제고되었으며, 정부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투·용자가 활성화되면서 양돈농가 및 업계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요즘 축산업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지향하는 추세이며, 축산기자재산업도 농가에서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분뇨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21

세기는 친환경적인 축산업도약이 피부로 느껴지는 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해를 마감하며 한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식량수급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도래할 식량 위기시대를 대

비 고품질의 축산물을 브랜드화, 소비자들에게 우수축산물을 인식 제고시키고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치밀한 마케팅전략 기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축산과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청정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21세기 한

국축산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앞으로 사양기법의 개발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구조개선으로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다가오는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과학축산으로 축산강국을 건설하길

지형준/(주)대호

새 천년을 앞둔 우리의 양돈 산업은 몇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먼저 우리 양축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돈콜레라를 박멸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양기술의 차별화로 고급육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번 거론되었고 사양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우리 양축가들이 고민에 빠져있고 혹자는 양돈산업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지난 우리 양돈산업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 우리의 양돈산업은 한민족이 외세에 많은 침략을 당한 것처럼 수많은 역정에 시달려 왔지만 우리 양돈산업은 그때마다 하나된 힘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양돈산업은 어떤 것 보다는 힘이 있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닥쳐올 많은 문제, 예를들면 돈콜레라 청정화, 세계 곡류시세 불안정, 국내 돈육소

비 불안정 등이 계속해서 우리 양돈산업을 위협하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가꿔온 많은 사양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고급화된 사양기술과 차별화된 사양기술을 토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돈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위해서 새천년에는 진정한 과학 축산

새천년에는 진정한 과학축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축산 강국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축산 강국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 하는 우리 양돈산업 앞에는 아름다운 희망과 넘치는 용기가 있다고 단언하며, 그동안 한국양돈산업의

고급화를 선도한 본회 회원과 많은 양축가 여러분께 본지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써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동물약품업계...

강윤수/이글케이칼

지난 IMF위기 이후 국내 축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동물약품업계 또한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 동물약품은 대부분이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단계를 거쳐 재생산하는 국내제조품과 수입완제품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 업계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료, 완제품의 자연적인 수입가격 상승이 지난해 한해 국내 수입회사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대신에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직판체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 동물약품업계는 IMF후에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품질 및 가격경쟁을 하면서 국내에 줄어드는 시장 여건을 타파해야만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동물약품의 시장은 사료생산실적의 증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비례의 곡선을 형성하므로 국내사료 생산량이 정체에 머무르게 되면 동물약품 시장 또한 정체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한정되어 있는 국내시장으로의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국내의 업체간의 판매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같은 체제간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살을 깎아

먹게되는 결과만이 남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각 업체만의 독특한 제품이나 전략적인 영업방침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 즉 제2의 축산업계의 IMF가 도래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한국축산업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아래, 업체 상호간의 선의 경쟁 하에 상호공존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진정한 기업만이 새천년 축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동물약품관련자들은 말한다. **양돈**

업체 상호간의 선의 경쟁 하에 상호공존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진정한 기업만이 새천년 축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동물약품관련자들은 말한다.

